

#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 문 열었다

## 호남동에 지하 1층·지상 13층 특급호텔...무등산·광주천 한 눈에 95개 객실·연회장·휘트니스센터 등...내달 10일 그랜드 오픈행사



(Via Verde)가 마련됐다. '조룩색 길'이라는 의미의 '비아 베르데'는 그 이름처럼 광주천의 푸른 길을 내려다보며 이태리의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국내에 단 1대 뿐인 피자용 가마(화덕)를 미국에서

광주의 무등산과 광주천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특급호텔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이 문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은 광주시 동구 호남동(전면우로 369) 옛 대원빌딩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특급호텔로 탈바꿈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 이어 총장호텔을 연 김대원(사진) 회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소재한 광주 동구에 호텔이 없어 전당을 방문한 고객들이 상무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민과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호텔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장호텔은 주변 비즈니스 호텔과는 격이 다르다. 특급호텔이 전무했던 광주에 '광주 최초 특급호텔' 건립이라는 결실을 이뤄낸 김 회장이 리모델링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등 그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졌다.

우선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 1층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다른 느낌'이 전해져왔다. 현대적인 세련미를 품은 모던함과 따스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특급호텔'에 걸맞은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곳에는 프론트&로비와 갤러리카페 '엘름'(ELM)이 조성돼 있는데, 투숙객을 위한 조식을 물론, 커피와 차, 각종 샌드위치, 샐러드, 파니니, 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멀티라운지다.

2층에는 남성 고객들을 위한 남성 전용 휘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제스트'(ZEST)가 들어섰다. 제스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헬스장은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우나의 경우도 호텔 문의를 통해 투숙객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 3층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아베르테'

직접 수입해 설치, 전문 이탈리아 요리사를 초빙해 피자부터 싱싱한 해물이 듬뿍 올라간 각종 파스타, 스테이크 등을 선보인다.

5층부터 11층까지는 객실이다. 무등산과 광주천을 바라볼 수 있는 현대적 감성의 공간으로, 비즈니스와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룸 등 총 10가지 타입의 95개 객실이 준비됐다.

무엇보다 12층과 13층에 마련된 연회장이 돋보인다. 보통 호텔의 연회장이 지하나 저층부에 조성되는 것과 달리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의 연회장은 최고층에 위치해 있다. 행사를 하면서 무등산과 광주천을 비롯해 광주 도심의 풍광과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행사 인원수와 스타일에 따라 연회와 세미나, 미팅은 물론 고품격 호텔 웨딩이 가능하도록 접단장비·시설을 갖춘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50명에서 300명의 연회, 100명에서 500명의 세미나가 가능하다.

도시락과 뷔페, 양식코스 등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만의 고급 메뉴와 함께 풍격과 격조를 갖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은 오는 11월10일



광주시 동구 호남동에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이 문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무등산과 광주천을 조망할 수 있는 객실과 연회장을 비롯해 남성전용 헬스장·사우나 시설, 이탈리아 레스토랑, 카페 등 시설을 갖췄다.

그랜드오픈 행사를 진행한다. 가수 정승환과 비보이퍼포먼스팀 'JACKPOT CREW'(젝팟크루)를 초청해 특별공연과 함께 경품추첨, 기념품 증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Value. Includes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 식이섬유 백미의 18배 가능성 '사포닌 쌀' 드세요

### 광주 본량농협, 전국 판매

광주에서 생산된 기능성 쌀이 고급 쌀 브랜드를 달고 전국 소비자를 만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본량농협이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에서 계약재배한 '사포닌 쌀'이 ㈜메디머스의 고급 브랜드 '황후의 아침 사포닌 쌀'로 전국 판매된다고 20일 밝혔다.

본량농협은 올해 152ha(46만평) 규모 사포닌 벼를 계약 재배했다. 이는 지난해(50ha)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 수매량은 1000t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된 쌀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메디머스의 '황후의 아침 사포닌 쌀' 이름을 달게 된다.

본량농협은 기능성 특화작목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능성 쌀을 재배하고 있다.

이 쌀은 외부 시험기관 검증을 통해 '조사포닌' 성분 함유를 인정받았다. 14대 영양소 분석결과 100g 기준 식이섬유 함유량이 17.9g으로, 일반 현미의 9배, 백미의 18배 이상 많다.

정장은 본량농협 조합장은 "쌀 소비가 부진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 어려움을 커지는 가운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쌀 재배단지 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광주에서 생산된 사포닌 함유 기능성 쌀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품사량기부제 지자체 담래품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부품업체 전동화' 정부와 '맞손'

## 산업부·공정위 등과 협약...2·3차 협력사 등에 5.2조 지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전동화 체제 구축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성장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화 대전환 흐름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중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부품업체가 신사업 투자를 지속,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현대차그룹이 운영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

사업 운영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 현대차그룹과 함께 500억원의 '공동투자 R&D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중기부는 현대차그룹이 2·3차 협력사의 수익성 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000억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집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공정위는 2·3차 협력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미래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부품사 대상 정책 홍보 및 참여 기업 선정 등을 담당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산업 성장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실시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5조2000억원 규모의 손익 지원, 유동성 지원, 경쟁력 향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 거래가 없는 5000곳 이상의 2·3차 협력사에도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부품업체의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핵심부품 소재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자립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외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업체에 대한 상생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송프로와 함께하는 시너지데이' 열어 송중욱 광주은행장, 후배들과 소통의 시간

'송프로'라 불리는 광주은행 송중욱 은행장이 후배 직원들과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송프로와 함께하는 시너지데이'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직원 120여 명이 참가해 송은 행정과 영화 '탑건: 매버릭'을 보고 서로 소통했다. 송은행장은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 관람 행사를

를 진행했다. 그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지역민과의 동행'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데 이는 일 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광주은행만의 따뜻한 기업문화를 탄탄하게 확립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더불어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로나 기저효과' 기업 매출·자산 증가율 '역대 최고'

## 지난해 매출 17%·총자산 12.7% ↑...원자재가 상승 영향도 영업이익률 5.6%로 상승...세전 순이익률 6.5% 사상 최고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려있던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2021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85만8566개(제조업 17만5101개·비제조업 68만3465개)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새 17.0% 증가했다.

매출은 2020년 1.1%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 매출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이 2020년 -2.3%에서 18.1%로 높아졌다.

특히 석유정제(-34.1%→-49.3%), 화학업(-8.0%→-28.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비제조업 매출증가율 역시 2020년 -0.01%에서 지난해 15.3%로 상승 전환했다. 운수·창고업(-8.1%→-29.9%)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연간 총자산증가율도 2020년 7.9%에서 2021년 12.7%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역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 제조업(5.9%→10.4%)과 비제조업(9.3%→14.1%) 모두에서 유동자산이 크게 늘었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제조업은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했고, 비제조업은 현금성 자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6%로, 2020년(4.2%)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수요 증가, 유류제품 가격 스프레드 확대 등 대외여건 변화에 힘입어 전자·영상·통신장비업(8.4%→12.9%), 석유정제업(-5.9%→-5.9%), 운

수창고업(0.5%→7.2%) 등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역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외수익 흑자 전환 등 영향으로 6.5%를 기록했다.

2020년 3.9%보다 올랐으며,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김 팀장은 "부동산업, 도·소매업의 투자·유형자산처분손익, 전자·영상·통신장비업 등의 배당금 수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9년 편제 이후 처음으로 영업외수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120.3%로 2020년말 118.3%보다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0년 말 30.4%에서 지난해 말 30.2%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비용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328.92%에서 487.90%로 치솟았다.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돌아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40.9%에서 40.5%로 소폭 줄었다.

김 팀장은 "대부분 업종에서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많이 줄었는데, 정보통신·부동산·조선 등 업종에서는 비중이 조금씩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